

신권 지도자를 위한 유용한 제안

봉사 선교 사업을 더 발전시킬 방안

제일회장단은 2018년 11월에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봉사 선교 사업은 [토론] 선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납으로, 주님께서서는 이를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토론] 선교 사업을 “진짜 선교 사업”, “정상적인 선교 사업”, 또는 “전통적인 선교 사업”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피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사는 주님을 대표하며 그분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몇 가지 유용한 제안을 따랐을 때,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제일회장단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관찰한 결과 신권 지도자들(지역 칠십인,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포함)이 다음 지침에 집중할 때 일이 진척되고 문화가 잘 바뀐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ㄱ.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에 말과 글로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을 한다.
- ㄴ. 봉사 선교 지도자 부부에게 말과 글로 직접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을 한다.
- ㄷ.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에 봉사 선교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하도록 권장한다.
- ㄹ. 봉사 선교 지도자들에게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와드 또는 지부, 그리고 협의 평의회 모임과 잘 조율하도록 권유한다.
- ㅁ. 봉사 선교 지도자들에게 스테이크 대회, 성찬 모임, 다섯째 주 일요일 모임 등에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다.
- ㅂ. 봉사 선교 지도자들에게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만나도록 권유한다.
- ㅅ. 봉사 선교사와 토론 선교사를 동등하게 대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ㅇ. 스테이크 회장은 조기 귀환하는 선교사가 귀환하기 전에 지역 봉사 선교 지도자와 협의한다.
- ㅈ. 스테이크 회장은 계속해서 관찰 스테이크 출신의 봉사 선교사에 대한 교회와 관련된 책임을 갖는다. 스테이크 회장과 봉사 선교사가 서로 밀접하고, 효과적이며, 보살피는 관계를 맺는다면, 봉사 선교사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선교사들이 각 분기에 적어도 한 번 자신의 신권 지도자와 만나도록 권유했다. 2019년에는 봉사 선교사들 중 56퍼센트만 이 기회를 가졌다.

